

# 한국어 주격표지, 격표지의 생략, 초점, 그리고 화제\*

이종근  
(목포대학교)

Lee, Jong Kun. (2021). Nominative case markers, ellipsis of case markers, focus, and topic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4), 21-4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various morphemes are used to indicate topics in Korean. While in many cases, the so-called nominative case marker *-i/-ka* occurs to indicate focus in Korean, this study claims that these so-called nominative case markers can be also used as a special form of topic markers in Korean and offers various data to support this claim.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s how bare nominal phrases can occur to indicate topics in place of nominal phrases marked with the topic marker *-un/-nun*. This study further argues that, in principle, to indicate topics in Korean, the topic marker *-un/-nun* occurs when there is a contextually relevant alternative comparable with the topic while the so-called nominative marker *-i/-ka* occurs when there is no relevant alternative in terms of the situation-internal point of view. This paper also gives evidence that, contrary to the claims made by Lambrecht and Michaelis (1998) and Oh (2009), nominative case-marked noun phrases in Korean can indicate ratified as well as unrated topics.

**주제어(Key Words):** 화제(topic), 화제표지(topic marker), 초점(focus), 격표지(case marker), 주격표지(nominative case marker),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

---

\* 본 논문은 2019년 11월 2일 청주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생성문법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공동 가을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논문 구두 발표 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한언어학회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투고한 후 본 논문의 논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 1. 서론

Gundel(1988)에 의하면 세계 여러 언어에서 화제(주제)는 때로는 통사적 구조로, 때로는 운율(prosody)로, 또는 형태론적인 방법으로 실현된다. 한국어에서 화제(topic)는 '-은/는'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Oh(2008)와 Oh(2009)는 구어체 한국어에서 화제(주제, topic)를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와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 두 가지로 나누고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를 위해서는 영대명사(zero pronouns)나 액센트를 받지 않고 격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가 사용되고,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를 위해서는 '-은/는'이 붙는 명사구(*nun*-marked NPs)나 '~말이야' 구문이 사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 화제(주제)는 Schütze(2001), MacDonald & Welch(2009), Park(2010), 홍기선(2017), 이종근(2019) 등이 이미 관찰한 대로 흔히 주격 표지라고 불리는 '-이/가'에 의해서도 표시된다. 홍기선(2017)이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 a. 철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b. 철수가 차사고가 났어. (홍기선, 2017, p. 974)

문장 (1a)에서 '철수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1b)를 발화하는 시점에서는 '철수'는 이미 구정보(old information)이고 문장 (1b)는 결국 '철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되므로 화제(주제, topic)에 대한 그 어떤 정의를 적용하더라도 문장 (1b)에서는 '철수가' 문장의 화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연 화제(주제)를 표시하는 다양한 형태소들(또는 장치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는가, 특히 화제 표지라고 불리는 '-은/는'이 붙는 명사구가 화제로 나타나는 조건과 주격 표지라고 불리는 '-이/가'가 붙는 명사구가 화제로 나타나는 조건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 2. 화제(topic)와 화제의 표지

Oh(2008)와 Oh(2009)는 Lambrecht(1994)와 Lambrecht & Michaelis(1998)의 분류 방법을 따라 한국어에서 화제(주제, topic)를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와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 두 부류로 나누고 인준된 화제는 '영대명사(zero pronouns)'나 '액센트를 받지 않고 격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가 사용되고, 비인준 화제를 위해서는 '-은/는'이 붙는 명사구나 '~말이야' 구문이 사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Oh(2009)가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의 예  
 (A가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고 있는 자기 아들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는 상황. B가 A의 어머니임)  
 A: 엄마, 민호는 어때요? ∅ 밥 같은 것 잘 먹어요?  
 B: 응. **그 녀석**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낸다. (Oh, 2009, pp. 608-609)
- (3)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의 예: 화제 표지 ‘은/는’  
 (A와 B가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 관계이고, 둘이 서로의 가족에 대해 잘 아는 사이임. A와 B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상황. B는 A의 어머니가 병환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A: 수미야, 오래간만이네. 잘 지내니?  
 B: 응, 잘 지내. **너희 어머니**는 어떠시니? 건강하셔? (Oh, 2008, p. 33)
- (4)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의 예: ‘~말이야 구문’  
 (A와 B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이. 두 사람 다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회사 사장인 박 사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A: **박 사장 말이야**, 오늘 날 정말 열받게 만든다. 날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나봐.  
 B: 맞아. 그 사람 일 밖에 몰라. (Oh, 2008, p. 36)

그러나 Oh(2008)와 Oh(2009)의 연구는 화제 표지 ‘-은/는’이나 ‘~말이야’ 외에도 주격 표지 ‘-이/가’가 붙은 명사구가 화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한국어에서 주격 표지 ‘-이/가’가 화제를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Schütze(2001), MacDonald & Welch(2009), Park(2010), 홍기선(2017) 등에 의해 관찰되었으나 정확히 어떠한 조건에서 화제 표지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2019)이 이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화제 표지로서 ‘-은/는’이 사용되는 경우와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사용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가’에 대해 연구할 때 주격중출의 문제나 한국어에서 주격이 어떻게 인허되는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 화제를 표시하는 ‘-이/가’의 분포에 대해서는 그 현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판단된다.

### 3.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과 ‘-이/가’의 분포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제(주제, topic)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5) 화제(주제, topic)의 다양한 정의

- a. What the rest of the sentence is about (Hockett, 1958; Strawson, 1964; Gundel, 1974; Reinhart, 1981; Vallduvi, 1990; Lambrecht, 1994; Krifka, 2007; Portner, 2007)
- b. a framework within which the main predication holds (Chafe, 1976)
- c. a question under discussion (von Stechow, 1994)

화제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Lambrecht(1994, p. 131)의 정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6) A referent is interpreted as the topic of a proposition if in a given situation the proposition is construed as being about this referent, i.e., as expressing information which is relevant to and which increases the addressee's knowledge of this referent.

이와 같은 화제의 정의를 기준으로 홍기선(2017)의 다음 예문을 다시 보자.

- (7) a. 철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 b. 철수가 차사고가 났어. (홍기선, 2017, p. 974)

문장 (7b)은 분명히 '철수'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7b)의 명제가 '철수'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철수'는 위에 인용한 Lambrecht(1994)의 화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Yoon(1987) 등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문장 (7b)의 '철수'와 같이 주격중출구문(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의 첫 번째 명사구가 '-이/가'의 표지를 가지고 나타날 경우 이 명사구는 '초점'(focus)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7b)의 '철수가'와 같이 초점과는 거리가 먼 주격중출구문이 존재한다는 관찰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진전된 관찰이라고 본다.

또한 Schütze(2001)도 조사 '-이/가'가 교착되는 NP가 초점(focus)이 아닌 화제(topic)가 되는 문장의 예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 (8) a. 언어학이 취직이 어렵다.<sup>2)</sup>  
'As for linguistics, getting a job is difficult.' (Y.-S. Lee, 1990, p. 207)
- b. 비행기가 747이 크다.  
'As for airplanes, the 747 is big.' (J. Yoon, 1987, p. 139)

---

2) 일부 기존 연구에서 아래 인용된 문장들이 화자에 따라서는 비문법적으로 들리거나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문장들의 문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본 논문 후반부에서 논의할 것이다.

c. 꽃이 장미가 물이 많이 필요하다.

‘As for flowers, roses need a lot of water.’ (Schütze, 2001, p. 218)

d. LA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

‘As for L.A., it has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Hong, 1990, p. 219)

특히 Schütze(2001)는 ‘비행기가 747이 크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Tell me about airplanes.’와 같은 내용의 한국어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9) A: 비행기에 대해 뭐라도 말씀 좀 해보세요. 비행기 기종(機種) 같은 것도 좋고요.
- B: 아, 우선, 비행기가 747이 크지.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Schütze(2001)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0) Specifically, the present use of *ka* can mark an element that is not focused. These facts, plus the flavor of the standard translation with *as for*, which identifies a topic (Portner & Yabushita, 1998), indicate that “generic topic” uses of *ka* and *lul* indeed involve topic marking rather than focus marking. (Schütze, 2001, p. 219)

이와 함께 이종근(2019)의 연구는 주격중출구문인 아래 문장 (12)와 함께 주격중출구문이 아닌 문장에서도 화제 표지로서의 ‘-이/가’가 나타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 (11) A: (유치원에서) 저 꼬마 말인데요. 저 꼬마 참 잘 생겼지요?
- B: 예, 꼬마가 정말 잘생겼네요.
- (12) A: (농구코트에서) 저 애 말이에요. 키가 참 크지요?
- B: 예, 애가 키가 엄청 크네요.
- (13) A: (운동장에서) 재 좀 보세요. 재 운동 열심히 하지요?
- B: 예, 애가 땀을 참 많이 흘리네요.
- (14) A: (도서관에서) 저 학생요, 저 학생 지금 큰소리로 막 떠들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 B: 그러게요. 학생이 참 크게 떠드네요. (이종근, 2019, pp. 596-597)

위 문장들에서 밑줄 친 명사구들은 Lambrecht(1994)의 화제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화제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11b)는 대화 중 앞선 문장에서 이미 소개된 유치원의 ‘저 꼬마’에 관

한 이야기로 해석되므로 ‘꼬마’는 위의 화제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과연 화제 표지라고 불리는 ‘-은/는’이 붙는 명사구가 화제로 나타나는 경우와 흔히 주격 표지라고 불리는 ‘-이/가’가 붙는 명사구가 화제로 나타나는 경우의 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그 통사-의미적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3.1.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

이미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Oh(2008)와 Oh(2009)는 Lambrecht(1994)와 Lambrecht & Michaelis(1998)의 분류 방법을 따라 구어체 한국어에서의 화제(주제, topic)에 대해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와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 두 부류로 나누고 인준된 화제를 위해서는 영대명사(zero pronouns)나 액센트를 받지 않고 화제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가 사용되고, 비인준 화제를 위해서는 ‘-은/는’이 붙은 명사구나 ‘~말이야’ 구문이 사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Chafe(1987)는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에 대해 ‘active’ (discourse-active), ‘semi-active’ (accessible), ‘inactive’ (discourse-inactive) 등 3가지 서로 다른 수준의 활성화 상태(activation states)가 있다고 한다. 활성화 수준에 따라 Lambrecht(1994, 2000)는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이 ‘active’ (discourse-active)한 활성화 상태이면 인준된 화제로 분류하고,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의 활성화 상태가 semi-active (accessible)나 inactive (discourse-inactive)한 상태이면 비인준 화제로 분류한다. Lambrecht(1994, 2000)에 의하면 활성화 상태가 ‘active’하다는 것은 이미 앞 문장에서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이 언급된 경우이며 이미 청자의 의식(consciousness) 속에 있는 경우이다. 활성화 상태가 semi-active (accessible)하다는 것은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이 사람의 주변적 의식(peripheral consciousness) 속에 있는 경우로서 어떤 개념에 대해 ‘background awareness’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Lambrecht(1994)와 Lambrecht & Michaelis(1998)의 분류 방법을 따라 화제에 대해 ‘-은/는’, ‘~말이야’, 영대명사(zero pronouns), 액센트를 받지 않고 격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의 분포를 예측하는 Oh(2008)와 Oh(2009)의 분석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예문을 보자.

(15) 어제 학생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 학생은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다.

(Kim, 2021, p. 18)

Lambrecht(1994, 2000)에 의하면 활성화 상태가 ‘active’하다는 것은 이미 앞 문장에서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이 언급된 경우이며 이미 청자의 의식(consciousness) 속에 있는

경우라고 하고 이런 담화 지시물은 인준된 화제가 된다고 한다. 이 기준에 따라 Oh(2008)와 Oh(2009)는 한국어에서의 화제(주제, topic)에 대해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는 영대명사(zero pronouns)나 액센트를 받지 않고 화제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가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문장 (15)에서 ‘그 학생은’은 앞 문장에서 담화 지시물이 이미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대명사나 화제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으며 ‘-은/는’이 사용되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어제 학생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다.

(17) 어제 학생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 학생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런데 Kim(2021)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여 소위 “continuing topic”에 ‘-은/는’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담화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18) 백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S1)

그 고양이는 백만 번이나 죽고 백만 번이나 살았습니다. (S2)

백만 명의 사람의 고양이었으며, 백만 명의 사람이 귀여워했습니다. (S3)

백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을 때 울었습니다. (S4)

하지만 그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S5)

그러던 한때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닌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S6)

(Kim, 2021, p. 18)<sup>3)</sup>

위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앞 문장에서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이 언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위 “continuing topic”이라고 하는, S2에 나타나는 ‘그 고양이는’ 그리고 S5, S6의 ‘고양이는’은 화제표지 ‘-은/는’과 함께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h(2008)와 Oh(2009)는 한국어에서의 화제(주제, topic)에 대해 Chafe(1987)의 담화 지시물에 대한 활성화 상태(activation state) 수준에 따라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이 ‘active (discourse-active)’한 활성화 상태이면 인준된 화제로 분류하고,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는 영대명사(zero pronouns)나 액센트를 받지 않고 화제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가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문장 (18)에서 ‘그 고양이는’은 앞

3) Kim(2021)의 최근 연구는 화제 표지의 여러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S2에 나타나는 ‘그 고양이는’이나 S6에 나타나는 ‘고양이는’과 같은 “anaphoric definiteness”를 어떻게 형태통사적으로 나타내는가, 즉 지시사 “그”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지시사 “그”를 생략하고 무표형 명사(bare noun)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문장에서 담화 지시물이 이미 언급되어 인준된 화제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대명사나 화제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은/는’이 사용되어야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화제 표지 ‘-은/는’이 나타나는 담화 환경이 Oh(2008)와 Oh(2009)이 주장하는 비인준 화제의 경우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담화 환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고는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의 분포와 그 본질에 대해 Kim(2015)의 연구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Kim(2015)의 연구는 조사 ‘-은/는’에 대해서 네 가지 해석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한 네 가지 효과는 ‘topic introduction’, ‘frame introduction’, ‘contrast indication’, 그리고 ‘simple emphasis’이다. Kim(2015)은 topic/frame introduction에 대해 “an act of proposing a new topic/frame into the discourse for the purpose of either beginning a discourse or shifting/contrasting an existing topic/frame.”(Kim, 2015, p. 97)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담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화제를 제시할 때 그 목적이 새로운 담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미 작동하는 화제/프레임을 대조하거나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는’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떤 다른 비교대상이 될만한 다른 화제나 프레임(frame)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화제 표지 ‘-은/는’은 어떤 대안(alternative, 선택가능한 개체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일찍이 Kuroda(1972)는 판단(judgment)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판단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thetic judgment’와 ‘categorical judgment’의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일본어 화제 표지 ‘-wa’는 ‘categorical judgment’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categorical judgment’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sup>4)</sup>

(19) ... the categorical judgment is assumed to consist of two separate acts, one the act of recognition of that which is to be made the subject, and the other, the act of affirming or denying what is expressed by the predicate about the subject.

(Kuroda, 1972, p. 154)

Kuroda(1972)가 제시하는 ‘categorical judgment’를 수반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20) *neko wa asoko de nemuttu iru.* (Kuroda, 1972, p. 154)

the cat *wa* there sleeping is

‘As for the cat, it is sleeping there.’

4) Kuroda(1972)의 범주적 판단(categorical judgment)과 단순 판단(thetic judgment)의 구분은 철학자 Franz Brentano(1838-1917)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구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rentano(1973)를 참조하시오.

이런 문장을 발화할 경우 화자는 먼저 특정한 고양이나 고양이라는 동물에게 주목하고, 그 다음 이 고양이에 대해서 저기서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categorical judgment’는 한국어로 정언적 판단 또는 범주적 판단이라고 번역한다. 범주적 판단이라고 하면 담화 맥락에서 어떤 비교 가능한 범주들이 있는데 이 범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인식(recognition)하는 행위(act)가 하나의 판단이라는 것이고, 이 범주에 대해서 서술어로 표현되는 내용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또 하나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화자는 어떤 대안(alternative, 선택가능한 개체나 개념)으로서의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im(2015)이 언급하는 ‘-은/는’의 네 가지 해석 효과, 즉 “topic and frame introduction”, “contrast indication”, 그리고 “simple emphasis” 모두 화자가 어떤 대안(alternative, 선택가능한 개체나 개념)으로서의 범주 또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효과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위 예문 (15)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5) 어제 학생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 학생은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다.

(Kim, 2021, p. 18)

이 문장에서 화자가 ‘그 학생은’이라고 발화한 것은 발화하는 시점에 화자의 뇌리에 다른 비교 가능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특정한 학생에 대해서 말하면 그가 언어학을 전공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18)의 예문에서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18) 백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S1)

그 고양이는 백만 번이나 죽고 백만 번이나 살았습니다. (S2)

백만 명의 사람의 고양이었으며, 백만 명의 사람이 귀여워했습니다. (S3)

백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을 때 울었습니다. (S4)

하지만 그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S5)

그러던 한때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닌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S6)

(Kim, 2021, p. 18)

위 담화에서 S1 또는 S2에서 이미 “그 고양이”가 화제로서 인준되었다고 하더라도 S5를 말하는 시점에서 화자의 뇌리에 ‘그 고양이’와 비교될 만한 다른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화제 표지 ‘-은/는’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백만 번이나 죽었으면 죽을 때 슬퍼서 다른 고양이나 인간 같으면 한 번은 울 만도 한데 이 고양이는 울지 않았다는 대조의 의미가 약하게 포함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5에서 ‘그 고양이는’은 전형적인 ‘contrast indication’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topic and frame introduction’의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Oh(2009)가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의 예로 제시한 문장 (2)를 다시 살펴보자.

(A가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고 있는 자기 아들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는 상황. B가 A의 어머니임)

A: 엄마, 민호는 어때요? ∅ 밥 같은 것 잘 먹어요?

B: 응. **그 녀석**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낸다. (Oh, 2009, pp. 608-609)

이 예문에서는 앞 문장에서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로 언급된 ‘민호’는 고유명사로서 그 지시물이 한 번 언급된 후에는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민호는 같은 화맥에서 이미 앞 문장에서 ‘~어때요?’ 시작한 질문에 같은 사람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시점에서는 ‘민호’는 완전히 인준된 화제로서 처음에는 비교대상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맥락이다. 화자의 뇌리에 다른 어떤 비교할 만한 대상자는 없어진 상태이므로 화제 표지 ‘-은/는’은 어울리지 않는다. A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할머니의 대답에서도 역시 비교 대상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다른 어떤 대상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맥락이 되고, 이런 경우 ‘-은/는’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액센트를 받지 않고 화제 표지가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들리고, 화제 표지 ‘-은/는’과 함께 나타나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을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A가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고 있는 자기 아들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는 상황. B가 A의 어머니임)

A: 엄마, 민호는 어때요? ∅ 밥 같은 것 잘 먹어요?

B: 응. **?그 녀석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낸다.

### 3.2. 화제 표지 또는 화제 조력어로서의 ‘-이/가’

이제 화제 표지로서 ‘-은/는’이 아닌 ‘-이/가’가 나타나는 경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그 분포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앞절에서 예를 든 문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한다.

(7) a. 철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b. 철수가 차사고가 났어. (홍기선, 2017, p. 974)

이미 언급하였지만 문장 (7a)에서 ‘철수’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7b)를 발화하는 시점에서는 ‘철수’는 이미 구정보(old information)이고 문장 (7b)는 결국 ‘철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되므로 화제(주제, topic)에 대한 그 어떤 정의를 적용하더라도 문장 (7b)에서는 ‘철수’가 문장의 화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b)에서 화제인 ‘철수’는 주격 표지 ‘-가’와 함께 나타난다.<sup>5)</sup> (7b)의 예문을 발화할 때 화자는 (7a)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이므로 다른 대안(alternative)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배제하면서 질문에 답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주격 표지 ‘-이/가’가 화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은 (7b)와 같이 처음부터 다른 대안(alternative)이 되는 인물이나 개체와 비교할 상황이 아닌 경우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종근(2019)의 연구에서는 주격중출구문이 아닌 문장에서도 화제 표지로서의 ‘-이/가’가 나타난다는 점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 (11) A: (유치원에서) 저 꼬마 말인데요. 저 꼬마 참 잘 생겼지요?  
B: 예, 꼬마가 정말 잘생겼네요.
- (12) A: (농구코트에서) 저 애 말이에요. 키가 참 크지요?  
B: 예, 애가 키가 엄청 크네요.
- (13) A: (운동장에서) 재 좀 보세요. 재 운동 열심히 하지요?  
B: 예, 애가 땀을 참 많이 흘리네요.
- (14) A: (도서관에서) 저 학생요, 저 학생 지금 큰소리로 막 떠들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B: 그러게요. 학생이 참 크게 떠드네요. (이종근, 2019, pp. 596-597)

위 문장들에서 밑줄 친 명사구들은 Lambrecht(1994)의 화제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화제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11b)는 앞선 문장에서 이미 소개된 유치원의 ‘저 꼬마’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되므로 ‘꼬마’는 위의 화제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의 예문 (11)~(14)의 특징은 이 문장으로 묘사되는 상황이 Hawkins(1978)가 언급한 ‘immediate situation’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눈앞에서 벌어지거나 보이는 상황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자가 당장에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외에 어떤 대안(alternative)이 되는 대상자나 대상물을 뇌리에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는 대안이 되는 대상자가 뇌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점 이론에서

5) 문장 (7b)에서 ‘철수’에 교착된 ‘-가’는 주격 표지로 분석하는 연구자도 있고, 주격 표지가 아닌 초점 표지(focus marker) 또는 담화 표지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상 이러한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표지’ 또는 ‘주격 조사’로 부르더라도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격표지(Case marker)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주격 조사 ‘-이/가’의 본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종근(2018)을 참조하시오.

말하는 초점 해석을 받을 수 없다. 초점 해석은 일반적으로 Rooth(1985)가 설명한 대로 맥락상으로 관련성이 있는 대안들의 집합(a set of contextually relevant alternatives)이 있고, 이 집합의 원소들 중 어느 하나만 그 서술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 성립될 수 있다.<sup>6)</sup> 본 논문의 주장은 위 (7b)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제 중에서 화자의 뇌리에 처음부터 대안이 되는 대상자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11)~(14)의 밑줄 친 명사구처럼 화제 표지 ‘-은/는’ 대신 주격 표지 ‘-이/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immediate situation’만 어떤 대안(alternative)이 되는 대상자나 대상물을 뇌리에서 배제하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Kim(2021)이 제시하는 다음 예문들을 보자.

- (21) a. 엄마가 어제 과자를 구워 주셨다. 과자가 정말 맛있었다.  
 b. 어제 학생 한 명과 상담을 했다. 학생이 참 똑똑했다. (Kim, 2021, p. 23)

이러한 예문들에 대해 Kim(2021)은 담화지시물을 가리킬 때 상황-내적(situation-internal, 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이 취해진 문장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다. 위의 두 예문과 예문 (11)~(14)의 공통점은 화자가 발화할 때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내적인 관점으로 어떤 대상자나 대상물을 묘사할 때는 어떤 대안이 되는 대상자나 대상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 문장에 나타나는 대상자(대상물)는 흔히 무표형 명사(bare noun)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화제가 주어인 경우에 주격 표지가 교착되어야 한다. 이 격표지는 이 대상물이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으로 나타나는 대상물로 확립해주는 역할을 하며 [+ definite]의 의미 속성을 갖게 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문에서 주격 표지 ‘-이/가’가 생략되면 아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장의 문법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 (13) A: (운동장에서) 재 좀 보세요. 재 운동 열심히 하지요?  
 B: \*예, 애 맘을 참 많이 흘리네요.

그러나 명사 ‘애’ 앞에 지시사 ‘저’를 부가하면 문장은 다시 문법성이 개선된다.

- (13) A: (운동장에서) 재 좀 보세요. 재 운동 열심히 하지요?  
 B: (? )예, 저 애 맘을 참 많이 흘리네요.<sup>7)</sup>

6) ‘presentational focus’, ‘corrective focus’, ‘counterpresuppositional focus’, ‘definitional focus’ 등 초점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Gussenhoven(2008)을 참조하시오.

7) 한국어 화제 표지 ‘-은/는’과 주격 표지 ‘-이/가’, 영대명사, 무표형명사의 출현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im(2021)은 화자들 사이에 관찰되는 이러한 문법성 판단의 차이는 최

이 경우 ‘저 애’는 지시사의 도움으로 특정한 아이의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어 주어 명사구의 경우 지시사 없는 무표형 명사가 특정 ([+ definite]) 지시 해석을 받으려면 주격 표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 (11)~(14)의 예문에 나타나는 모든 주격 표지 명사구가 모두 그런 예들이다. 이 경우 주격 표지가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이 이종근(2019)의 주장이다. 그런데 ‘저 애’의 경우에는 주격 표지가 없더라도 특정 지시로 해석되므로 주격 표지가 생략될 수 있다. 본 논문 서론에서 소개된 예문 “철수가 차사고가 났어.”에서도 주격 표지 ‘-가’는 “철수 차사고 났어.”처럼 생략될 수 있다. 특히 구어체에서는 이러한 생략(비출현)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본다. 본 논문의 주장은 질문에 대한 대담 맥락의 화제이거나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으로 보아서 대안(alternative)이 되는 관련된 대상자(대상물)가 뇌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화제 명사구에 화제 표지로 ‘-은/는’이 아닌 ‘-이/가’가 나타나고, 이러한 맥락에서 화제가 되는 주어 명사구가 보통명사로서 지시사 없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가’가 붙지 않으면서 액센트를 받지 않는 무표형 명사구(unaccented bare NPs)는 고유명사에서처럼 이미 특정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구어체나 문어체나, 격식을 갖춘 문체나 아니면 비격식 문체나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주격 표지 ‘-이/가’가 화제 표지로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명사의 ‘특정 지시’ 해석이 요구될 때 스피치 스타일(speech style)이나 레지스터(register, 언어역)와 관련 없이 의무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격 표지가 이러한 방식으로 명사(구)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터어키어를 비롯한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터어키어에서는 목적어 명사구에 대격 표지가 나타나면 [+definite]의 해석을 받고, 목적어 명사구에 대격 표지가 없으면 [+definite]의 해석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들(Enç, 1991; Nakipoglu, 2009 등)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핀란드어에서도 부분격(partitive case)이 부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에서 격 표지가 영어의 정관사에 해당하는 DP의 핵 D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찍이 박정섭(1992)의 연구가 이미 제기한 바 있어서 주격 표지 ‘-이/가’가 특정한 맥락에서 무표형 명사에 [+ definite]의 의미 속성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모든 격 표지가 한정사(Determiner)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아니고, (11)~(14)의 예문에서처럼 화자가 발화할 때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을 취하면서 동시에 명사가 무표형 명사일 경우로 한정한다.

---

적성 이론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되는 순서에 차이를 두는 지역 방언이나 개인 문법의 차이로 설명한다. 본 연구도 화자들 간에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본적으로 Kim(2021)이 제안하는 방식, 즉 여러 가지 담화 표지와 격 표지, 그리고 격 표지 생략 규칙의 적용 순서 차이로 설명하는 접근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순서의 차이는 지면 관계상 다루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Oh(2009)의 한국어 화제 표지에 대한 주장과 본 연구의 중요한 차이점은 우선 Oh(2009)의 주장과는 다르게 주격 표지 '-이/가'도 화제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화제 표지로서의 '-이/가'가 Oh(2009)가 언급한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인지 아니면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화제 표지로서의 '-이/가'는 Oh(2009)의 화제 표시의 이분법과는 다르게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도 될 수 있고 화맥에 따라서는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도 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2) (식탁에서 환담하다가)  
김치가 참 맛있네요.
- (23) (B가 A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던 중에)  
A: 저희 집 김치 어때요?  
B: 예, 김치가 아삭아삭하고 참 맛있네요.<sup>8)</sup>

문장 (22)의 '김치'는 앞 문장에서 이미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놓인 식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이기에 화자-청자가 쉽게 접근(accessible) 가능하고 청자의 주변적 의식(peripheral consciousness) 속에 있는 화제 지시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 (22)의 '김치'는 비인준 화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3)에서 두 번째 언급된 '김치'는 이미 앞 문장에서 언급되었으므로 'discourse-active'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문장에서 B가 말하는 '김치(가)'는 인준된 화제라고 분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Oh(2009)의 화제 표시의 이분법적 분류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또 하나의 주장이다.

### 3.3. 주격중출구문과 화제 표지(화제 조력어)로서의 '-이/가'

이제 주격 표지 '-이/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격중출구문(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이라고 불리는 다음 예문을 보자.

- (24) a. 꼬끼리는 코가 길다.  
b. (동물원에서 꼬끼리를 구경하며) 꼬끼리가 코가 참 길기도 하네.

8) 이 문장에서도 '김치가'에서 '-가'는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을 취하면서 식탁에 놓여있는 특정한 김치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경우 식탁에 여러 반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대상물(음식)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반찬이나 음식은 맛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화자의 뇌리에 비교대상이 되는 음식이 없다고 분석해야 될 것이다. 이 맥락에서 '김치'를 사용한다면 비교 대상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음식은 모르겠고 김치가 맛있다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음식은 다 맛이 없고 김치만 맛있다는' 해석이 나오므로 '김치'는 화맥상 적절하지 않다.

위 문장 (24b)에서 ‘코끼리’는 특정 지시 해석을 받을 때 가장 자연스럽다. 다수의 화자에게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는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는 문장은 부자연스럽게 들리거나 문법성이 “marginal”하다고 보고하는 것은 (24b)의 문장이 어느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코끼리를 보고 말을 해야, 즉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을 취하면서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직접 보면서 말하고 들어야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문장은 동물원에 가지 않고서 교실에서 말해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격중출구문에서 주격 표지 ‘-이/가’가 항상 이렇게 화제 표지로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Yoon, 1990 등)이 관찰한 대로 다음 예문에서처럼 ‘exhaustive listing reading’ 해석을 받을 때 ‘-이/가’가 사용되기도 한다.

(25) 기린이 키가 커, 아니면 **코끼리**가 키가 커?

문장 (25)에 나타나는 주격 표지 ‘-이/가’는 어느 한 마리의 기린이나 코끼리를 지시하지 않고, 즉 [+ specific] 해석이나 [+ definite] 해석을 받지 않고, 총칭해석(generic interpretation)을 받으면서 동시에 초점(focus) 해석을 받는다. (25)의 예문에서처럼 명사가 총칭 해석을 받으면서 초점 해석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화제 해석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맥락과 관련된 대안 집합에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으로 {기린, 코끼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이/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발음상으로 ‘prosodic prominence’도 동반된다. 그러니까 ‘-은/는’과 다르게 ‘-이/가’는 화제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화맥상 어떤 대안이 되는 개체가 없는 경우이며, 문장 (25)에서처럼 초점 해석을 받기 위해서 ‘-이/가’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prosodic prominence’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격중출구문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비교적 자주 들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문장들이다.9)

지금까지 보통명사가 무표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주격 표지 ‘-이/가’가 화제를 표시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나 추상명사가 주격 표지 ‘-이/가’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본 논문 앞부분에서 인용했던 문장 (8)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9) 이종근(2018)이 이미 주장한 것처럼 ‘-이/가’가 화제 명사구에 나타날 때 본 연구는 이를 ‘화제 표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가’가 항상 화제 표지로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이/가’는 (25)에서처럼 초점을 나타낼 때 ‘prosodic prominence’와 함께 초점을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초점 조력어(focus facilitator) 내지 초점 표시어(focus indicator)로 사용될 수도 있고, (24b)처럼 화제를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제 조력어(topic facilitator) 내지 화제 표시어(topic indicator)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가’는 “어제 철수가 만난 사람”에서처럼 화제나 초점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주격 표지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종근(2018)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8) a. 언어학이 취직이 어렵다.

‘As for linguistics, getting a job is difficult.’ (Y.-S. Lee 1990, p. 207)

b. 비행기가 747이 크다.

‘As for airplanes, the 747 is big.’ (J. Yoon 1987, p. 139)

c. 꽃이 장미가 물이 많이 필요하다.

‘As for flowers, roses need a lot of water.’ (Schütze 2001, p. 218)

d. LA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

‘As for L.A., it has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Hong 1990, p. 219)

위와 같은 주격중출구문과 관련된 예문들은 사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각 문장 첫 번째 명사에 ‘-이/가’가 나타나면 어색하게 들리고, ‘-은/는’이 나타날 때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화자가 많다.

(26) a. 언어학은 취직이 어렵다.

b. 비행기는 747이 크다.

c. 꽃은 장미가 물이 많이 필요하다.

d. LA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

그러나 (8)과 같은 문장도 실제로는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25)에 제시된 문장들이 왜 많은 경우 부자연스럽게 들리는지를 대안 집합(alternative set) 설정에 바탕을 둔 상황-내적 관점 접근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26a) ‘언어학은 취직이 어렵다.’는 언어학이 학문분야로서 전자공학이나 조선공학, 약학 등과 비교할 때 언어학 전공자는 취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할 때 자연스럽게 들린다. 다시 말해 대안 집합 {전자공학, 조선공학, 약학, 언어학}이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경우 (26a)의 문장 ‘언어학은 취직이 어렵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다. 반면에 (8a)의 문장 ‘언어학이 취직이 어렵다.’는 화자와 청자가 다음과 같은 담화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27) A: 철수가 내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지?

B: 응, 맞아. 지금 영문과 4학년인데 내년 2월에 졸업한다고 하더군요.

A: 졸업하고 뭐 한 대?

B: 대학원에 간대.

A: 뭐 공부하려고?

B: 언어학 전공한대.

A: 언어학 전공하면 취직이 될까? (S7)

B: 글썄, 언어학이 취직이 좀 어렵지. (S8)

위 담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문장 (S8)과 같은 문장에서 ‘언어학’과 함께 나타나는 주격 표지 ‘-이’는 자연스럽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문장에서 주격 표지 ‘-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문장 (S7)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S8)을 발화할 때는 (S8)의 화자는 {전자공학, 조선공학, 약학, 언어학}과 같은 집합을 비교대상으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맥락이다. (S7)에서 언어학의 취업 전망을 물어보았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되는 맥락인 것이다. 그래서 (S8)의 문장 ‘글쎄, 언어학이 취직이 좀 어렵지.’에서는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맥락이라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문장 (8d) ‘LA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도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여러 도시를 마음속으로 비교하면서 처음 말을 시작할 경우에는 ‘LA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 경우 화자의 마음속에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델라스}와 같은 대안 집합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담화 맥락에서는 ‘LA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라는 문장도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

(28) A: 우리 지난달에 같이 만났던 송 교수 있잖아?

B: 응.

A: 글쎄, 그 친구가 자기 큰딸 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

B: 아, 그래? 뜻밖이네. 언제 간대?

A: 다음 달.

B: 그런데 이민을 미국 어디로 간다고?

A: LA로. 송 교수 부인이 작년에 세상 떠났잖아. 딸이 아버지가 홀로 너무 외로워 하시는 같아 자기가 모신다고 해서 LA로 간다고 하더군.

B: 음. 노인한테는 날씨도 따뜻하고 한국 사람 많이 사는 LA가 좋을 거야. (S8)

A: 그래, LA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지. (S9)

위 담화 환경 속에서 문장 (S9)를 발화하는 화자는 마음속에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델라스}와 같은 대안 집합을 생각하지 않고 LA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LA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지.’라는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 ‘LA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지.’와 같은 주격중출구문이 많은 경우 자연스럽게 느끼지는 것은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담화 맥락을 화자들이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며, 적절한 대화 맥락에서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 인용된 (8)과 같은 주격중출구문(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 MNC)에 대해 MacDonald & Welch(2009, p. 5)는 “... *-i/-ka* on the first DP of an MNC is a marker of

presentational focus (introductory information) or topic.”이라고 하고 “... we see that on DPs that are introductory, new information (presentational focus/topic), *-um/-nun* is replaced by *-i/-ka*.”라고 주장한다. 즉, 주격중출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가’는 정보 구조 표지(a marker of information structure)로서 초점 표지이거나 화제 표지라고 주장하였다. 주격중출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가’는 격표지(Case marker)가 아니라는 데 방점을 두어 최소주의의 격이론(Case Theory)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였고, Rizzi(2004)의 이론에 따라 주격중출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통사구조상으로 TP의 상위에 FocP나 TopP에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MacDonald & Welch(2009)는 주격중출구문의 ‘-이/가’가 “a marker of presentational focus (introductory information) or topic”이라고만 하고 ‘presentational focus’와 ‘topic’을 자세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은/는’에 대해서는 “... *-um/-nun*, which appears on continued topics or contrastive topic/focus.”라고 하면서 주격중출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가’와 구분하였다.

MacDonald & Welch(2009)의 연구가 주격중출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에 대해 화제 또는 초점이라고 분석한 점은 주격중출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예외 없이 초점을 받는 명사구라고 분석한 기존의 일부 분석에 비하면 진일보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acDonald & Welch(2009)의 연구는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화제 표지로서의 ‘-이/가’가 나타나는 통사·의미·화용적 조건과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이 나타나는 통사·의미·화용적 조건을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MacDonald & Welch(2009)는 ‘-이/가’가 ‘introductory topic’을 표지(mark) 한다고도 했는데 이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여, Kim(2015)이 주장하는 ‘topic and frame introduction’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Kim(2015)의 ‘contrast indication’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Kim(2015)은 ‘topic/frame introduction’에 대해 “an act of proposing a new topic/frame into the discourse for the purpose of either beginning a discourse or shifting/contrasting an existing topic/frame.”(Kim, 2015, p. 97)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MacDonald & Welch(2009)의 ‘introductory topic’과 차이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대안 집합(alternative set)에서 원소가 하나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되는 개체/개념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화제 표지 ‘-이/가’와 화제 표지 ‘-은/는’을 구분하면서 화제 표지자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 비하면 MacDonald & Welch(2009)의 연구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종근(2019)의 연구도 한국어에서 화제 표지 ‘-은/는’이 사용되는 통사·의미·화용적 조건과 주격 표지 ‘-이/가’가 화제를 표시하는 경우의 통사·의미·화용적 조건을 비교분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종근(2019)은 화제 표지(topic marker)로서 ‘-이/가’가 출현하는 경우는 한국어 조사 ‘-은/는’이 유발하는 해석 효과로 인해 화제 표시자(topic indicator)로서 ‘-은/는’이

교착될 수 없을 때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종근(2019)은 화제 표시자로서 주격조사 ‘-이/가’가 출현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Kim(2015, p. 97)이 화제 표지 ‘-은/는’의 ‘topic/frame introduction’ 효과에 대해 “an act of proposing a new topic/frame into the discourse for the purpose of either beginning a discourse or shifting/contrasting an existing topic/frame”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출현하는 경우는 화제가 이미 “proposing”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화제 표지 ‘-은/는’의 ‘topic/frame introduction’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둘째,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출현하는 경우의 무표형 명사(bare noun)들은 화제 표지 ‘-은/는’과 결합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총칭적 해석(generic reading)이 되어야 하는데 (11)~(14)와 같은 문맥은 총칭적 해석(generic reading)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사물을 가리키는 특정 해석(specific reading)이 필요한 문맥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종근(2019)의 분석은 화제가 이미 “proposing”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24b)의 예문에서처럼 화자가 발화할 때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을 취하면서 화제로 나타나는 사람이나 사물, 개념에 대한 대안(alternative)이 뇌리에 없을 때에도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화제 표지로서 ‘-이/가’가 의무적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보통명사이면서 ‘특정 해석(specific reading)’을 받을 경우라고 하는 주장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화자와 청자가 문답 형식의 문장이나 상황-내적인 관점에서 그 화제의 대상을 두고 발화하므로 특정 해석이 아닌 ‘한정 해석(definite reading)’을 받는 경우라고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안 집합(alternative set)에서 원소가 하나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되는 개체/개념이 ‘복수’의 원소로 화자의 뇌리에 떠오르는 대안 집합(alternative set)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화제 표지 ‘-이/가’와 화제 표지 ‘-은/는’의 출현을 예측하는 본 논문의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화제(주제)를 표시하는 다양한 형태소들(또는 장치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는가, 특히 화제 표지라고 불리는 ‘-은/는’이 나타나는 조건과, 주격 표지라고 불리는 ‘-이/가’가 화제를 표시하는 화제 표시자(topic indicator) 또는 화제 조력어(topic facilitator)로 사용되는 조건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의 분포와 그 본질에 대해 Kim(2015)의 연구에서 그 단서를 찾아 그 분포를 분석하였다. Kim(2015)의 연구는 조사 ‘-은/는’에 대해서 네 가지 해석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가 말한 네 가지 효과는 ‘화제 소개/ 프레임 소

개', '대조 지시', 그리고 '단순 강조'이다. Kim(2015)은 담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화제를 제시할 때 그 목적이 새로운 담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미 작동하는 화제/프레임을 대조하거나 전환하려고 한다고 분석하였는데 근본적으로 '-은/는'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떤 다른 비교대상이 될만한 다른 화제나 프레임(frame)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화제 표시 '-은/는'은 어떤 대안(alternative, 선택가능한 개체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화제 표시자로서의 '-이/가'의 분포에 대해서 본 논문의 주장은 질문에 대한 대답 맥락의 화제이거나 상황-내적(狀況內的)인 관점(point of view)으로 보아서 대안(alternative)이 되는 관련된 대상자(대상물 또는 개체)가 뇌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주목하였다. 이런 화제 명사구에는 화제 표시로 '-은/는'이 아닌 '-이/가'가 나타나고, 이러한 맥락에서 화제가 되는 주어 명사구가 보통명사이면서 지시사가 없는 무표형 명사(unaccented bare noun)로 나타날 경우에는 [+ definite]의 의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격 표시가 이러한 방식으로 명사(구)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터어키어와 같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도 본 논문의 주장의 타당성을 지지한다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장은 화제 표시로서의 '-이/가'는 Oh(2009)의 화제 표시 이분법과는 다르게 인준된 화제(ratified topic)도 표시할 수 있고 화맥에 따라서는 비인준 화제(unratified topic)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화제 표시 장치가 Lambrecht & Michaelis(1998)가 붙어나 영어를 바탕으로 이분법으로 화제 표시 장치를 분류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격중출구문(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s)에 나타나는 주격 표시 화제 명사구의 분석은 첫 번째 명사구에 '-이/가'가 교착할 경우 담화 맥락에 따라 화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초점의 해석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집합(alternative set) 기반의 분석을 제안하였다.

## 참고문헌

- 박정섭. (1992). 중주어와 증목적어. *생성문법연구*, 2(2), 293-334.
- 이종근. (2018). 한국어 격표지의 본질과 초점. *언어연구*, 33(4), 733-755.
- 이종근. (2019). 한국어 주격 표시 '-이/가'와 화제의 표시. *언어연구*, 34(4), 593-605.
- 최기용. (2009). *한국어 격과 조사의 생성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 홍기선. (2007). 한국어의 조사 '가'. *Comparative Korean Studies*, 15(2), 23-46.
- 홍기선. (2017). 한국어의 조사 '가'와 '를': 격과 의미. *언어*, 42(4), 961-988.

- Brentano, F. (1973).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Translated by Antos C. Rancurello, D. B. Terrell, and Linda L. McAlister from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1874, 1924). Sections V-IX.
- Chafe, W. L.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pp. 25-56). New York: Academic Press.
- Enç, M.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1), 1-25.
- Gundel, J. (1974). *The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 Gundel, J.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In Hammond et al (Eds.),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pp. 209-239). Amsterdam: John Benjamins.
- Gussenhoven, C. (2008). Types of focus in English. In C. Lee, M. Gordon, & D. Buring (Eds.), *Topic and focus: Cross-linguistics perspectives on meaning and intonation*. Dordrecht: Springer.
- Hawkins, J. A. (1978).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London: Croom Helm.
- Hockett, C.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Hong, K.-S. (1990). Subject-to-object raising in Korean. In Dziwirek et al (Eds.), *Grammatical relations: a cross-theoretical perspective* (pp. 215-225). Stanford: CSLI.
- Hong, K.-S.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Kim, I.-K. (2015). Is Korean *-(n)un* a topic marker? On the nature of *-(n)un* and its relation to information structure. *Lingua*, 154, 87-109.
- Kim, M.-J. (2021). *Anaphoric definiteness marking in Korean and the role of point of view*. Paper presented at the 2021 KGGC and KSLI Conference, on-line, 6 November.
- Krifka, M. (2007). Basic notions of information structure. In C. Féry, G. Fanselow, & M. Krifka (Eds.), *The notions of information structur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information structure*, Vol. 6, 13-55.
- Kuroda, S.-Y. (1972). The categorial and the thetic judgment.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recht, K. and Michaelis, L. A. (1998). Sentence accent in information questions:

- default and projec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5), 477-544.
- Lambrecht, K. (2000). When subjects behave like objects: an analysis of the merging of S and O in sentence-focus constructions across languages. *Studies in Language*, 24(3), 611-682.
- Lee, Y.-S. (1990). Is INFL universal? A case study of Korean. In Y.-K. No & M. Libucha (Eds.), *ESCOL'90: Proceedings of the Seventh Eastern Conference on Linguistics*, 204-214.
- MacDonald, D., & Welch, N. (2009). Topic, focus and double subjects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2009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Linguistic Association*, 1-14.
- Nakipoglu, M. (2009). The semantics of the Turkish accusative marked definites and the relation between prosodic structure and information structure. *Lingua*, 119(9), 1253-1280.
- Oh, C.-S. (2008). Ratified and unratified topics in spoken Korean. *언어학*, 16(3), 25-41.
- Oh, C.-S. (2009). -Un/nun as an unratified topic marker in Korean. *언어*, 34(3), 603-624.
- Park, D.-W. (2010). Some notes on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9, 36-65.
- Portner, P. (2007). Instructions for interpretation as separate performatives. In K. Schwabe & S. Winkler (Eds.), *On information structure, meaning and form* (pp. 407-426). Amsterdam: John Benjamins.
- Reinhart, T. (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1), 53-94.
- Rizzi, L. (2004). *The structure of CP and IP: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oth, M. (1985). *Association with foc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Schütze, C. T. (1996). Korean "case stacking" isn't. Unifying non-case uses of case particles. In K. Kusumoto (Ed.), *Proceedings of NELS 26*, 351-365. Amherst, Massachusetts.
- Schütze, C. T. (2001). On Korean 'case stacking': The varied functions of the particles *ka* and *lul*. *The Linguistic Review*, 18, 193-232.
- Strawson, P. F. (1964). Identifying reference and truth values. *Theoria*, 30, 96-118.
- Vallduvi, E. (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von Fintel, K. (1994). *Restrictions on quantifier domai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Yoon, J. (1987). Some queries concerning the syntax of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 138-162. Seoul: Hanshin Publishing Company.
- Yoon, J.-Y.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이종근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전화: (061)450-2124

이메일: jklee@mokpo.ac.kr

Received on November 25,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31, 2021

Accepted on December 31, 2021

